

#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초기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Early Adjustment Process to Daily Life in the Kindergarten

오재연\* · 남민우\*\* · 김경린\*\*\*

Jae Yeon Oh · Min Woo Nam · Kyang Ran Kim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s adjustment process to kindergarten and differences in their adjustment among time points. For these purpose, we conducted interviews and a questionnaire survey with teachers in charge of 3-5-year-old you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t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s in Gwangju, Jeollanamdo and Daeje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adjusted themselves to kindergarten through four weeks' daily life in the kindergarten. In daily work adjustment, they showed some difficulty in Week 2 but their adjustment improved rapidly in Week 3 and Week 4. Self adjustment and peer adjustment also improved notably in Week 3 and Week 4. In pro-social adjustment, the children showed difficulty in Week 2, improvement in Week 3, and again difficulty in Week 4. These results suggest that, by responding to the teacher's sensitivity and intimacy, you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have a pattern of adjustment similar to that of young children in Korea families.

\*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e-mail: edulove@kwu.ac.kr

\*\* 목원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전임강사. 교신저자. e-mail: ecampus@mokwon.ac.kr

\*\*\*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e-mail: kimklan@kwu.ac.kr

주요어(key words):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y), 유치원생활(Daily Life in the Kindergarten), 초기적응과정(Early Adjustment Process)

## 1. 서론

최근의 다문화화는 다문화가정에 관한 지원법 제정(보건복지부, 2008),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가지원(교육과학기술부, 2008, 2009, 2010; 보건복지부, 2008)과 2007년 이후 다문화관련 연구의 급증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국가나 학계연구들의 결과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및 그들의 자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가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언론 보도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문제 중 하나로 거론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관련 의 국가사업과 학계의 연구들은 우리나라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이고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부모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녀들을 한국 사회의 또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구체적인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매우 시급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성·민족·인종·사회적 지위와 같은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빠르게 인식하도록 교육할 수 있는 유아기(김영옥, 1998; Derman-Sparks & A. B. C. Task Force, 1992)를 위한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이중 국적을 지닌 어머니와의 생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유치원생활의 적응을 구체적으로 다뤄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에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국가사업(교육과학기술부, 2008, 2009,

2010; 보건복지가족부, 2008; 서울시, 2008)이나 학계연구(김갑성, 2006; 김향자, 2010; 김현경, 2009; 박미경, 2007; 송선진, 2007; 신혜정, 2007; 정민영, 2009)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국가사업의 지원서비스는 대부분 언어와 문화적응교육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국어 교육, 한국어 문화교육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다문화교육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정선아, 2009). 다문화 관련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기관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언어문제(김병순, 2008; 박미경, 2007) 및 외모 차이로 인한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김병순, 2007; 박미경, 2007; Tzivinikon, 2004) 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이유를 다문화가정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변인에서 찾고 있다(김향자, 2010; 김현경, 2009; 이정선, 2007; 정민영, 2009; 정민영 & 정정희,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9, 2010)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위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계획과 희망유아교육사 파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08)는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과 가족 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이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로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서울시(2008)는 국내의 외국인 수가 2002년 7만 3,000명에서 2009년 22만 9,00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2008년 7월에 처음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10인 이상 보육시설 중 용산구 사무엘 어린이집과 영등포구 신일 어린이집 2개소를 '다문화 다민족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였다(메디컬 투데이, 2009). 하지만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을 위한 정책과 지원은 유아들의 능력, 가능성, 유능함보다는 유아를 문제가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으며, 현재 유아의 삶을 보장하기

보다는 미래 성인으로의 준비를 위한 처방과 개입을 강조하여(오채선, 2008)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실제적인 다문화교육의 장을 열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즉, 다문화 유아들이 지닌 능력이나 가능성을 이끌어 내기 보다는 다문화 유아 자체를 우리와 다른 존재로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의 단순한 도움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를 이끌고 있는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유아기부터 건강한 주체로 성장하게 하며, 그들의 유치원생활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들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정 유아가 가정을 떠나 하루 중 긴 시간을 생활하는 유치원 적응과정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적응요인별 관계를 적응기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치원 적응과정에는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언어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술이 요구되어진다. 유아는 가정을 떠나 유치원이라는 새로운 사회 속에서 규칙, 기술 등을 터득하면서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긍정적,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유아가 유치원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환경을 신뢰하면서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유아가 자신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적응 과정은 영아가 보육시설에 등원하면서부터 귀가하는 시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활동규칙과 반복적인 맥락을 이해하게 될 때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연구(구수연, 2008)의 결과를 고려해볼 때 다문화가정 유아의 취원 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적응과정 연구는 이들의 어려움이 어떠한 적응 측면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과정을 1주, 2주, 3주, 4주의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영아반 교사들을 인터뷰하여 영아 초기 적응

기간을 2주로 보고 이후 과정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김해숙, 2011)와 영아가 보육시설에 적응하는 데 걸린 시간은 대체로 5주라고 제시한 연구(류경, 2000) 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설정하였다. 또한 경력 5년 이상의 보육교사 3인, 시설장 2인과 영아기 전문가 3인의 면담과정을 통해 유아기는 가장 급속한 발달 시기로서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노출이 많은 시기이므로 초기적응과정의 연구를 위해서는 4주간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적응과정은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가 직접 적응과정을 측정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를 평정할 때 교사보다 유아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교사가 평정하는 방법이 더 객관적이라는 선행연구(김정아, 1990; 김지선, 2009) 결과를 근거로 다문화가정 유아가 유치원에서 보이는 행동상태를 교사가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시간경과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적응과정을 분석할 것이며, 이는 향후에 이루어질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유아의 1주, 2주, 3주, 4주 유치원생활 적응 행동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4주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 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 2-1. 4주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일과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 2-2. 4주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자아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 2-3. 4주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또래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 2-4. 4주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친사회적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 2. 이론적 배경

### 2.1. 다문화가정 현황

다문화 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로 2003년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대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 2세로 부르자고 제안함으로써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1세기 국제화, 다문화시대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그 자체 내의 맥락에 맞게 좀 더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2009)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연령별 외국인 자녀 현황에 의하면 10만 7,689명의 외국인 자녀들이 한국에 사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중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59%인 6만 4,040명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등록 인구의 2.2%가 다문화 이주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도시 인구의 20%, 농촌 인구의 80%가 다문화가족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외국 노동인력의 유입이나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08)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의 다문화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

층형 교육인 「09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과 각 지역의 여건 및 우선순위에 따른 16개 시·도 교육청의 세부 실행계획을 세움으로써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가족부(2009)는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 사람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전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제1회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도 측정”을 수행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조선족이 3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국 29.1%, 베트남 18.4%, 기타 민족(몽골, 태국, 캄보디아, 남아프리카, 우즈베키스탄, 영국, 인도네시아) 11.2%, 필리핀 5.9%, 일본 3.2%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국가에서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내의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의 국적이 2008년 이전에는 조선족 한국인이 55,789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대만, 몽골, 태국 등의 순으로 많았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캄보디아, 태국이 급증하는 등 다문화가정 외국인부모의 출신국가가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중국(한국계) 59,346명(전체 32.7%), 중국 51,348명(28.3%), 베트남 36,640명(19.1%), 필리핀 10,610명(5.8%), 일본 5,326명(2.9%), 몽골 2,602명(1.4%), 태국 2,272명(1.3%), 대만 1,042명(0.6%), 이외에 기타 국가 14,485(8.0%)를 나타내고 있다(행안부, 2010.1). 또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들 자녀의 연령별 현황인데 다문화가정의 자녀 수 121,935명 중 만 6세 이하의 유아가 75,776명으로 전체 자녀 수의 62.1%를 차지하고 있다(행안부 2010.1)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 추이는 2020년에는 20대 한국인 5명 중 1명이 다문화가정 자녀가 될 것이고, 신생아 중 3분의 1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추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7).

학계에서의 다문화가정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대부분의 연구가 1990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배경 연구로 다문화가정의 사회문화적 위치,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결혼여성 이민자들이 겪는 가정에서의 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05년 이후에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모, 다문화가정 유아관련 연구 등으로 확대되어 연구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중문화 특성으로 인한 어머니의 제한된 한국어 사용능력, 한국생활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 문화적 갈등, 다름에 대한 차별 등의 자녀양육 관련 문제들을 다루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김갑성, 2006; 김현경, 2009; 박미경, 2007; 설동훈, 2005; 신혜정, 2007; 정민영, 2009).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주 언어는 한국어이지만 여성 이주자가 조선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한국어실력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들은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부부문제, 시댁과의 문제 등이 연구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이나 복지기관의 도움들은 부족한 실정이다(설동훈 외, 2005).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사업정책이나 학계에서의 다문화가정에 관한 연구들은 다문화가정의 현황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다문화가정 유아가 가정과 기관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다문화적 특성에 기초하여 연구해 왔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는 현재에 대한 조명을 통해 미래 유아들의 삶에 예견되는 교육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김현경, 2009),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2.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적응(adjustment)이란 개체가 환경에 대하여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학적 용어(두산백과사전, 2007)이다. Ladd & Price(1982)는 적응을 교실에서의 또래관계 및 상호작용관련 행위인 사회적 적응과 새로운 환경 내에서의 또래와 관련하여 유아가 표현하는 정서적 불안과 회피의 정도로 규정할 수 있는 교육기관 내의 적응으로 구성하여 적응을 한 개인이 사회화되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교육기관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타인, 특히 또래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교육기관의 하루 일과를 잘 이해하여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정민영 & 정정희, 2010에서 재인용).

다문화가정 유아들에게 유아교육기관 적응이란 가정에서 벗어나 첫 사회·문화적 적응과정이며, 유아들의 실제적 발달을 형성하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김현경, 2009)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중 언어와 문화생활의 특성 변인이 유아교육기관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갑성, 2006; 신혜정, 2007; 정민영, 2009; 조영달, 2006).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유아기는 인생의 전반적인 발달과정의 결정적 시기로 가정과 사회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유아는 태어나서부터 이중문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성장·발달과정은 일반 유아에 비해 상호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일반유아들의 초기적응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내용에 비추어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적응실태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1990년대 영유아의 초기적응이 이후의 인간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물들이 강조되면서 영유아의 적응, 부적응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한국 영유아 적응에 대해 연구한 최현자(1994)는 13~35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퇴소한 비율과 퇴소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50%의 영아들이 도중에 그만두었으며 그만둔 이유의 31%가 부적응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보육시설 안의 물적, 인적 자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직면하는 사회적 요구를 수행하는 것을 적응이라고 볼 때(구수연, 2004), 한국 영유아뿐만 아니라 이중문화의 생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접하는 유치원생활에서의 다문화가정 유아를 물리적, 인적환경들과의 관계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영유아들도 처음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반복적인 격리와 낯선 환경인 기관과 주양육자를 대신하는 교사와의 만남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영아의 발달과정에 큰 손상 및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김지수, 2008) 안정적인 적응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인종·다문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의 다문화 유아 적응관련 선행연구들은 국제결혼 자녀들의 발달단계상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있어서 지체를 보이거나 한국 문화에 부적응하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문제를 지닌다고 보고하고 있다(설동훈, 2005; 오성배, 2005; 조영달 외, 2006; 홍영숙 2007). 설동훈(2005)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한국어가 서툰 이주 여성이 자녀교육을 담당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오성배(2005)와 홍영숙(2007)은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이 한국유아에 비해 문장이해력이 떨어지거나 받아쓰기, 독후감 정리를 잘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쓰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에 관한 조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김향자, 2010에서 재인용). 이렇듯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언어적, 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

적응의 문제는 한국유아들이 겪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유아의 적응과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과정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한국유아는 취학 전에 유아의 언어 습득이 가정에서 기초가 이뤄지는 반면, 다문화가정의 유아는 대부분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를 통해 이뤄지므로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언어장벽에 부딪치게 될 수밖에 없다. 다문화가정의 유아는 언어를 습득한다하더라도 서툰 한국어 능력을 익히게 되며 한국유아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매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학습 자료, 교수-학습 방법 등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며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또한 다문화가정 유아를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도', '다문화교육의 목표에 대한 관점' 등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의 다문화적 태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며, 이해 수준도 높은 편이고, 많은 교사들이 인간관계 중심 관점과 배려 중심 관점의 다문화교육 목표에는 동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향자, 2010에서 재인용).

지금까지 다루어진 다문화관련 선행연구들과 국가사업들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의 출발을 유아 개인의 다양성을 관찰, 탐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오채선, 2008), 다문화가정 유아가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벗어나 새롭게 처음 접하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과정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는 물론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안정적 적응력과 다문화가정의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지도 역할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2009)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자료 보급 및 교사지원을 목적으로 제시한 지역별 공립·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과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10년도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원중인 유치원」 통계를 기초로 지역을 선정하였다. 지역 선정은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분포(행정안전부, 2009)와 연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광주·전남·대전지역 유치원에 재원 중인 다문화가정 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면접과 설문조사를 하여 84명의 다문화가정 유아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유치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 광주지역과 전남지역의 유치원은 직접 방문하여 대상 유치원의 원장에게 동의를 얻고 조사하였다. 대전지역의 유치원은 유선으로 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임한 경력이 2년 이상의 교사 참여와 유아교육기관에 처음 취원한 다문화가정 유아를 관찰하도록 협조를 받았다. 선정된 광주지역 7개, 전남지역 8개, 대전지역 6개의 유치원을 무작위 표집하여 각각의 유치원당 다문화가정 유아 2~3명과 그들의 담임교사(교사 한 명당 유아 2명을 기준)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에 협조한 담임교사 58명에게 92명의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1주, 2주, 3주, 4주의 적응을 관찰하고, 기록하게 하였다. 조사된 내용 가운데 4주의 적응과정을 응답하지 않았거나 기재가 부실한 관찰채점지 8부를 제외하고 총 84부(91.3%)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된 다문화가정 유아의 일반적인 배경을 그들의 외국인 부모 국적과 성별 및 연령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

변 인	구 분	빈도(%)		
다문화가정 유아	어머니 국적	일본	7(8.3)	
		중국	16(19.0)	
		조선족	8(9.5)	
		대만	5(6.0)	
		몽골	3(3.6)	
		필리핀	20(23.8)	
		베트남	10(11.9)	
		남부아시아	6(7.1)	
		미국	3(3.6)	
		러시아	4(4.8)	
		기타(태국, 인도네시아 등)	2(2.4)	
		계	84(100.0)	
		성별	남	44(52.4)
			여	40(47.6)
			계	84(100.0)
연령	만 3세	28(33.3)		
	만 4세	25(29.8)		
	만 5세	31(36.9)		
	계	84(100.0)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유아를 중심으로 그들의 부모 국적을 살펴보면 필리핀이 20명(2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국 16명(19.0%), 베트남 10명(11.9%), 조선족 8명(9.5%), 일본 7명(8.3%), 남부아시아 6명(7.1%), 대만 5명(6.0%), 러시아 4명(4.8%), 몽골, 미국이 각각 3명(3.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국, 인도네시아의 국적이 2명(2.4%)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더욱 다양화된 국가의 외국

인들이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아 44명(52.4%), 여아 40명(47.6%)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유치원 연령인 만 3세 28명(33.3%), 만 4세 25명(29.8%), 만 5세 31명(36.9%)이 조사되어 다문화가정 유아의 분포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 3.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에는 교사가 관찰하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부모 국적과 유아의 성별 및 연령을 체크하기 위한 일반적인 배경 질문과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된 유아교육기관 적응 검사도구가 포함되었다.

#### 3.2.1. 기초사항질문지

다문화가정 유아의 부모 국적과 유아 성별, 연령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 3.2.2.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검사도구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Jewsuwan, Luster, & Kostelnik(1993)가 개발한 PAQ(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사용한 김지은(2003)의 연구도구와 이를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에 사용한 김현경(2009)의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Jewsuwan, Luster & Kostelnik(1993)은 요인분석을 통해 친사회적 적응, 유치원 환경에서의 정서적응, 또래적응, 자아적응, 일과적응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김향자(2010), 김현

경(2009)의 연구가 사용한 4가지 하위요인 일과적응, 자아적응, 또래적응, 친사회적 적응을 사용하였다. '일과적응'의 내용은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하루 일과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며 교사에게 관심과 도움을 적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적응'은 자신감이 있고 독립적이며 자기주장이 있고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적응'은 유아가 또래 관계에서 친구들이 하는 활동에 잘 참여하고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을, '친사회적 적응'의 내용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함께 협동하며,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의미한다.

전체문항 수는 27문항이며 평정은 어머니가 유아를 평정할 때 교사보다 유아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교사가 평정하는 방법이 더 객관적이라는 선행연구(김정아, 1990; 김지선, 2009) 결과를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유아가 유치원에서 보이는 행동상태를 교사가 평가하는 것으로 국한하였다. 평정방법은 각 문항을 읽고 유아의 행동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교사가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5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는 5, 대체로 그렇다는 4,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평정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도구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7로 나타났다으며, 하위요인별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검사도구

하위요인	내용	문항 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일과적응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하루 일과를 이해하기, 일과에 맞게 행동하기, 일과변화에 적응하기	7	.95
자아적응	유아 스스로 자신감이 있고 독립적이며 자기주장을 할 수 있어서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가짐	7	.76
또래적응	원만한 또래 관계, 친구들이 하는 활동에 참여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6	.95
친사회적 적응	친구들을 도와주고 함께 협동하기, 놀잇감 나누어 함께 하기, 유아교육기관에서 즐겁게 지내며 친절하고 우호적이고 편안함을 느낌	7	.89
전체		27	.97

### 3.3. 연구절차

#### 3.3.1. 예비조사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행동 측정도구가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면접법과 질문지법을 통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경력 5년 이상으로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유치원 교사 2인과 다문화가정 유아를 접한 원장 1인, 유아교육전문가 3인의 1차 면담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기는 가장 급속한 발달시기로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노출이 많은 시기이며, 다문화가정 선행연구(김현경, 2009; 정현영, 2007)와 적응 선행연구들(김은경, 2010; 신현정, 2003)을 고려해 볼 때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최소 4주간을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유아 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교육기관 교사 3명(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과 유아교육 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설문지 문항을 검토하는 면담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의 문화나 환경에 적절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다문화가정 유아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점검된 내용과 교사들과의 면담 자료에서 확인된 문항들로 최종 구성된 질문지를 통해 1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이당 4번의 반복 적용을 조사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용을 측정하는 데 첫째 주에서의 관찰 및 응답 시간은 다문화가정 유아 1인당 1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2주째에는 8분, 3주째, 4주째에는 점점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 3.3.2. 본 조사

본 조사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분포와 연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지역의 유치원 교사(다문화 가정 유아를 담임한 경력 2년 이상)와 다문화가정 유아가 처음 취원한 경우를 고려하여 무작위 표집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설문지 작성방법을 설명하여 4주간의 적용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과정을 통한 예비조사와 다문화가정 선행연구, 적용 선행연구들과 경험을 고려해 볼 때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최소 4주간을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4주간 적용을 다문화가정 유아를 경험한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사(1인당)가 유치원에 처음 취원한 다문화가정 유아 2인을 1주마다 관찰하고 해당하는 척도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 3.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ail Sciences) Version 18.0으로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경과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적응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1주, 2주, 3주, 4주 각각의 적응과정을 유치원생활 적응 하위요인별로 일과적응, 자아적응, 또래적응, 친사회적 적응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시간경과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반복요인으로 하여 유치원생활 적응 하위요인별로 일과적응, 자아적응, 또래적응, 친사회적 적응 각각에 대한 반복측정(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및 해석

시간경과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적응행동과 1주, 2주, 3주, 4주 유치원생활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경향과 적응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1. 시간경과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적응행동

1, 2, 3, 4주의 시간경과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 생활 적응 행동에 나타난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는 <표 3>,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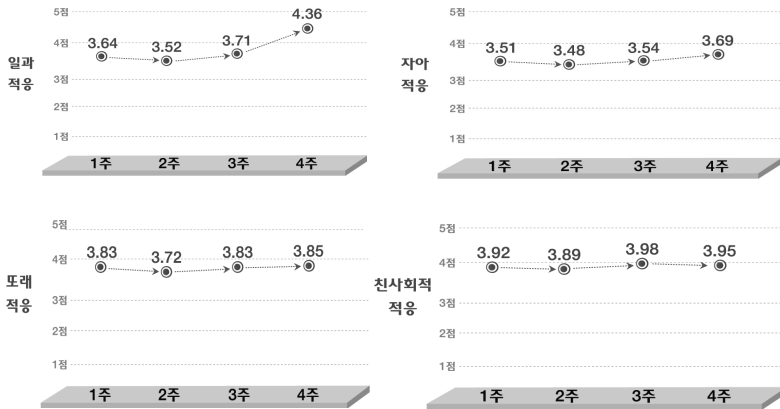
〈표 3〉 다문화가정 유아의 1, 2, 3, 4주 유치원생활 적응에 대한 기술통계

(N=84)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적응	1주	2주	3주	4주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일과적응	3.64(.80)	3.52(.77)	3.72(.81)	4.36(2.13)
자아적응	3.51(.79)	3.48(.67)	3.54(.73)	3.69(.73)
또래적응	3.83(.98)	3.72(.94)	3.83(.88)	3.85(.92)
친사회적 적응	3.92(.83)	3.89(.91)	3.98(.83)	3.95(.88)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84명의 다문화가정 유아가 1주, 2주, 3주, 4주의 유치원생활을 하면서 적응한 결과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일과 적응의 1주 평균은 3.64, 표준편차는 .80, 2주 평균은 3.52, 표준편차는 .77, 3주 평균은 3.72, 표준편차는 .81, 4주 평균은 4.36, 표준편차는 2.13으로 나타났다. 자아적응은 1주 평균 3.51, 표준편차 .79, 2주 평균은 3.48, 표준편차는 .67, 3주 평균은 3.54, 표준편차는 .73, 4주 평균은 3.69, 표준편차는 .73, 또래적응은 1주 평균 3.83, 표준편차 .98, 2주 평균은 3.72, 표준편차는 .94, 3주 평균은 3.83, 표준편차는 .88, 4주 평균은 3.85, 표준편차는 .92, 친사회적 적응은 1주 평균 3.92, 표준편차 .83, 2주 평균은 3.89, 표준편차는 .91, 3주 평균은 3.98, 표준편차는 .83, 4주 평균은 3.95, 표준편차는 .88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적응행동에 나타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 보면 유치원생활 1주에 있어서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함께 협동하며,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관심을 보이는 친사회적 행동이 가장 높은 적응력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유아가 또래 관계에서 친구들이 하는 활동에 잘 참여하고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또래적응,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하루 일과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며 교사에게 관심과 도움을 적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일과적응, 자신감이

있고 독립적이며 자기주장이 있고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자아적응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치원생활 4주째는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하루 일과를 잘 이해하고 지내는 일과적응이 친사회적 적응이나 또래적응, 자아적응보다 가장 높은 적응력을 나타냈다. 하위요인별 1주, 2주, 3주, 4주의 경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다문화가정 유아의 1, 2, 3, 4주 유치원생활 적응

<그림 1>과 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1주, 2주, 3주, 4주 적응경향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유아의 일과적응, 자아적응, 또래적응, 친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치원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유아가 1주, 2주, 3주, 4주 동안 유치원생활을 함으로써 유치원생활에 적응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과적응은 유치원생활 2주째 적응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보이다가 3주, 4주에 적응력이 급격히 향상 하였으며, 자아적응과 또래적응에 있

어서도 2주째 적응이 약간 줄어들다가 3주, 4주에 적응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적응은 2주째 유치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다가 3주에 향상하여 4주에 다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하위요인별 시간경과에 따른 적응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설계에 의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 4.2. 시간경과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적응 차이

시간경과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적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표 7>과 같다.

<표 4>와 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일과적응 내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적응 차이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하루 일과를 이해하기, 일과에 맞게 행동하기, 일과변화에 적응하기와 같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일과적응은 유치원생활에서의 1주, 2주, 3주, 4주의 시간경과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12.82, p<.001$ ).

<표 4> 다문화가정 유아의 1, 2, 3, 4주 일과적응에 대한 반복측정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처치 간	302.92	83	3.65	
	처치 내	265.16	252	12.75	
다문화가정 유아의 일과적응	시간	35.48	3	11.83	12.82***
	오차	229.68	249	.92	
	전체	568.08	335	16.4	

\*\*\* $p<.001$ .

〈표 5〉 다문화가정 유아의 1, 2, 3, 4주 자아적응에 대한 반복측정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다문화가정 유아의 자아적응	처치 간	161.88	80	2.02	
	처치 내	11.93	243	.07	
	시간	1.99	3	.66	16.04***
	오차	9.94	240	.04	
	전체	173.81	323	2.09	

\*\*\*  $p < .001$ .

〈표 5〉와 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자아적응 내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적응 차이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아 스스로 자신감이 있고 독립적이며 자기주장을 할 수 있어서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가지는 것과 같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자아적응은 유치원생활에서의 1주, 2주, 3주, 4주의 시간경과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16.04, p<.001$ ).

〈표 6〉 다문화가정 유아의 1, 2, 3, 4주 또래적응에 대한 반복측정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다문화가정 유아의 또래적응	처치 간	268.68	80	3.36	
	처치 내	9.00	243	0.3	
	시간	.82	3	.27	8.02***
	오차	8.18	240	.03	
	전체	277.68	323	3.66	

\*\*\*  $p < .001$ .

〈표 6〉과 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또래적응 내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적응 차이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원만한 또래 관계, 친

구들이 하는 활동에의 참여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와 같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또래적응은 유치원생활에서의 1주, 2주, 3주, 4주의 시간경과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8.02, p<.001$ ).

〈표 7〉 다문화가정 유아의 1, 2, 3, 4주 친사회적 적응에 대한 반복측정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다문화가정 유아의 친사회적 적응	처치 간	230.67	80	2.88	
	처치 내	8.27	243	.17	
	시간	.41	3	.14	4.16**
	오차	7.86	240	.03	
	전체	238.94	323	3.05	

\*\* $p<.01$ .

〈표 7〉과 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친사회적 적응 내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적응 차이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친구들을 도와주고 함께 협동하기, 놀잇감 나누어 함께하기, 유아교육기관에서 즐겁게 지내며 친절하고 우호적이고 편안함을 느끼는 등의 다문화가정 유아의 친사회적 적응은 유치원생활에서의 1주, 2주, 3주, 4주의 시간경과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4.16, p<.01$ ).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시간경과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적응행동인 일과적응, 자아적응, 또래적응, 친사회적 적응변화의 차이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되었으며,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경과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적응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1주, 2주, 3주, 4주 각각의 적응과정을 유치원생활 적응 하위요인별로 일과적응, 자아적응, 또래적응, 친사회적 적응에 대해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유아는 이중문화의 가정환경을 벗어나 처음으로 접한 기관에서 1주, 2주, 3주, 4주의 유치원 생활을 함으로써 적응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영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의존적인 상호작용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조혜진, 2003)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 2세 영아의 사회정서적 적응을 잘한다고 보고한 연구(황선영, 2012)와 일치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는 유치원생활 1주에 있어서 친구들을 도와주고 함께 협동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가장 높은 적응력을 나타냈으나, 유치원생활 4주째는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하루 일과를 잘 이해하고 지내는 일과적응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적응력을 나타냈다. 다문화가정 유아가 유치원생활 1주째 ‘친구들을 도와준다’, ‘친절하고 우호적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친사회적 적응이 일과, 자아, 또래적응들보다 높은 적응력을 나타낸 결과는 언어능력이 미숙한 다문화가정 유아가 교육기관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박미경, 2007; 정은희, 2004)들에 의해 논의를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지닌 언어능력의 미숙한 경험을 대신하여 친사회적 행동들이 한국 유아들에게 다가가는 데 다른 기술보다는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유치원생활에 적응하는 4주간의 과정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일과적응, 자아적응, 또래적응, 친사회적적응 모두에 있어서 2주째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영아의 적응과정을 연구한 황선영(2012)의 연구와 비교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황선영(2012)은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사회·정서적 적응과정에 대해 연구



한 결과 1주, 2주, 3주, 4주간 매주의 적응과정에서 순종이나 주의집중에 대한 사회적 유능성이 향상되며, 활동적이고 반항적인 외현적 문제행동과 우울, 분리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행동인 내면적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결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한국 영유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양선희, 2007; 조혜진, 2003; 황선영, 2012)과 비교해 볼 때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유치원 적응에 있어서 2주째 어려움을 보이는 것은 유치원생활 1주째에는 친사회적 행동들로 한국 유아들에게 다가서지만 유치원에 취원하기 이전 언어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언어발달시기에 외국인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하여(김갑성, 2006; 정은희, 2004)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투른 의사소통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모의 차이로 인해 또래관계나 사회적 관계형성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병순, 2007; 박미경, 2007; 오성배, 2005), 일반 유아들보다는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관된 행동들을 나타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 연구(송선진, 2007)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유치원생활 4주째에 결국 모든 적응과정에서 더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유아들이 편견에 의해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해 가까이 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 구성원으로서 함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oopnarine(1984)에 의하면 유아들은 3세경에 성·인종 또는 장애에 대하여 전편견을 나타내며, 3~5세경 유아들은 자아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여 정체감이 형성되어 다문화교육이 유아기부터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Kowalski & Lo(2001)는 유아기부터 다른 문화적 요인들보다 인종과 민족적 차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편견의 양상도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 장영희, 이숙재, 김혜실, & 김정화(1999)의 연구에서도 만 3~5세 유아 대부분이 '인종적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같은 인종인 황인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아기에 다른 형태의 편견보다 '인종'에 대한 편견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한 연구(전경화 & 김지현, 2001)들에 의해 본 연구결과를 설명해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교육기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어문제 및 정체성 혼란, 그리고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김병순, 2007; 박미경, 2007; 안은미, 2007; 정은희, 2004)들을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지도 시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1주째 적응특성과 2주째의 어려움, 3주, 4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사회에서의 한 구성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시간경과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적응과정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유아는 1주, 2주, 3주, 4주의 시간경과에 따라 일과적응, 자아적응, 또래적응, 친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유아가 1주, 2주, 3주, 4주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적, 물적환경과의 유치원생활을 함으로써 일과적응, 자아적응, 또래적응, 친사회적 적응을 더 잘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문화가정 유아는 외국인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루 중 절반 이상의 일과시간 동안 유치원에서 생활하면서 안정된 적응을 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4주간 적응과정을 통해 각각의 주별 적응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한국유아나 다문화 가정 유아의 적응과정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에 비교·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에 미치는 변인들을 생태학적 변인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들(김현경, 2009; 김향자, 2010; 정민영, 2009)과 비교해 볼 때 다문화가정 유아의 배경변인으로는 유아의 성별, 출생순위, 자아개념, 한국어 사용능력

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문화가정의 부모 변인으로는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과 취업유무, 문화적응이, 교사변인으로는 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가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현경, 2009; 김향자, 2010; 정민영, 2009). 김현경(2009)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개인변인, 부모의 일반적 배경변인, 부모의 관련변인, 교사 개인변인과 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유아의 성별, 출생순위, 모 취업유무, 모 국적, 교수효능감이 적응과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김향자(2010)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행동 하위영역별 영향 변인을 유아변인, 가정환경변인, 기관환경변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적응 하위변인인 일과적응, 자아적응, 또래적응, 친사회적 적응의 모든 적응에 있어서 교사효능감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교사는 다문화가정의 기능이 취약한 사회현실에서 교사가 유아의 적응행동에 밀접히 관계되어 있으며, 교사의 역할에 따라 유아의 적응행동이 중재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김현경, 2009). 이는 본 연구 결과의 4주간 유치원생활 적응에서도 교사의 변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선행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4주간의 적응차이에 대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한국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신현정(2003)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일반 한국 영유아의 적응에 대한 신현정(2003)의 연구는 영아의 초기적응기간에 있어서 4주 이상이 걸린다고 응답한 보육교사가 55%이었으며, 유아의 초기적응기간은 2주 정도면 어느 정도 적응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47.5%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초기적응기간을 연구한 결과와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4주간의 적응기간을 통해 안정된 적응을 하게 된 본 연구결과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한국유아가 아닌 다문화 유아임을 감안한다면 한국유아보다 2주 정도 지나야만 어느 정도 유치원생

활에 적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한국유아보다 적응기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다문화 관련 선행연구들(김병순, 2007; 박미경, 2007; 안은미, 2007; 오성배, 2005; 정은희, 2004)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크게 언어장벽·문화적 경험의 차이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한국가정과 한국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유아들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이중문화의 가정생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접한 다문화가정 유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치원생활에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유아도 적응과정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교사의 민감성, 친밀함 등으로 한국가정의 유아와 유사한 적응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환경 및 교사의 질 높은 상호작용을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가 유치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서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첫 초기 적응과정을 살펴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유아연령을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한국가정의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 생활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적응행동 간의 차이를 밝히고 유치원 연령의 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8주 이상 적응 행동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유치원 적응에 대해서는 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나 유아에 대한 민감성 등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는 분석되지 않았다. 이는 유아의 적응에 대해 담임교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적응에 대하여 동일한 관점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설문지 형식보다는 연구자의 관찰을 통한 자료수집이 요구된다.

■ 참고 문헌 ■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계획.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8).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계획. 2008년 11월 10일, [www.mest.go.kr](http://www.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 (2009). '09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계획 요약. 2010년 3월 8일, <http://www.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 (2010). '10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계획. 2010년 10월 5일, <http://www.mest.go.kr>.
- 구수연. (2008).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갑성. (2006).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김병순.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유치원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18, 98-138.
- 김수연. (2007). 유아의 기질 및 언어능력과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계-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 (1998). 반편견 교육을 위한 유아교육과정. 반편견 교육과정을 통한 인간교육. 제12회 한국어린이육영회 유아교육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어린이육영회*, 65-98.
- 김향자.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2011).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 지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미. (2007). 보육시설 이용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은. (2003). 5세 유아의 정서지능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향자.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

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 (2004).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교사의 성격특성과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경. (2009).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관련 변인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 경. (2000). 보육시설 초기적응과정의 영아 행동 특징과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 (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결혼 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 2007년 8월 20일 한국사회당 부대변인 김규남. <http://www.mw.go.kr>.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http://www.mw.go.kr>에서 2010년 1월 13일 검색.
- 메디컬 투데이. (2009). 서울시,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지원 서비스 확대한다; 다문화 다민족어린이집 2개소를 지정하여 시범 운영. 2008년 7월 1일. <http://www.acrofan.com/ko-kr/life/news>.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희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 한건수.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송선진. (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다문화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진숙, & 권희경. (200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유아의 사회적능력 및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8(3), 207-219.
- 송진숙. (200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3), 167-189.
- 신현정. (2003). 보육시설 초기적응에 대한 보육교사 인식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은미. (2007). 농어촌 국제결혼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선희. (2007). 유아의 유치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들의 구조분석. 충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0).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www.moleg.go.kr/>에서 2010년 4월 16일 검색.
-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 한국교육.
- 오소정, 김영태, & 김영란. (2009). 서울 및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특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기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8(1), 137-161.
- 윤형숙. (2005). 외국인 출신농촌 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10월 심포지엄.
- 이정선. (2007).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경험과 시사점: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1(2), 217-237.
- 장영희, 이숙재, 김혜실, & 김정화. (1999). 세계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실태조사. *교육연구*, 33, 143-168.
- 전경화, & 김지현. (2001). 유아문학을 통한 반편견 교육과 유아의 반편견 인식조사. *부천대학논문집*, 22, 204-214.
- 정민영. (2009).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민영, & 정정희.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유아교육연구*, 30(3), 141-168.
- 정선아. (2009).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9(1), 253-272.
- 정옥분. (2004). *영유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윤정. (2007). 결혼이민자가정의 특성과 아동들의 학교적응: 전라북도지역을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조혜진. (2003).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가족특성, 보육경험 및 기질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진주. (2005).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

자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선영. (2012). 생태학적 변인에 따른 만 2세 영아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ate, L., Luster, T., & Vandenbelt, M. (2000). Factors related to successful outcomes among preschool children born to low-income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1), 133-147.
- Derman-Sparks, A. B. C. Task Force. (1992). *Anti-Bias Curriculum-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 (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3), 542-557.
- Gibbs, J. T. (1990). *Biracial adolescents*. In J. T. Gibbs & L. N. Huang(Eds), *children of color* (pp. 322-350).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Jewsuwan, R., Luster, T., & Kostelink, M. (1993). The rek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33-51.
- Klein, G. L. (1982). Heuristic Influence on Decision Processes. Doctoral dissertation. Texas Tech University.
- Kowalski, K., & Lo, Y. E. (2001). The influence of perceptual features, ethnic labels, and sociocultural infprmation in the development of ethnic/racial bias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4), 444-455.
- Ladd, G. W., & Price, J. M. (1987). Predicting children's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58*, 1168-1189.
- Ladd, G. W., Kochenderg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 Roopnarine, J. L., & Johnson, J. E. (1993). *Approache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 York: Merrill.
- Tzivinikon, S. (2004). Intervention for a bilingual child with development speech problem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4*, 607-619.



논문투고일: 2012. 2. 10

1차수정일: 2012. 3. 9

게재확정일: 2012. 3. 20